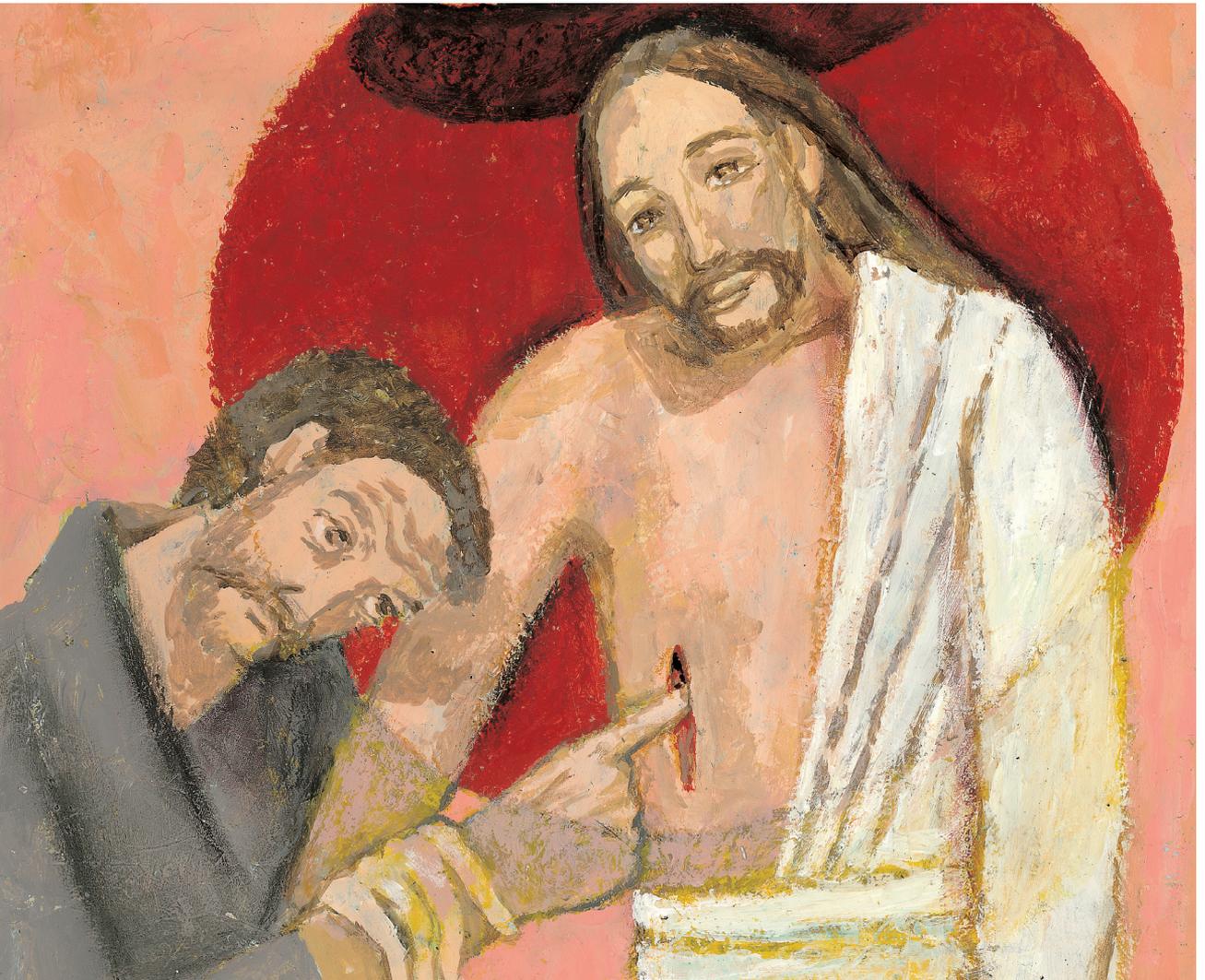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맞으며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18. 4. 8.(나해) 제2100호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홈페이지 | www.daegujobo.or.kr 이메일 | jubo@dgca.or.kr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뺐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요한 20,27)

〈오늘의 전례 6면〉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요한 20,29)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 때문에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기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과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 남녀 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토마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에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체험으로 토마스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그분은 이제 토마스에게 진정한 주님이 되고 하느님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고 의심을 극복한 토마스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그분이 항상 삶 한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어진 관계는 우리에게 영원함에 대한 희망을 심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이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의 존재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속성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예진광 이레네오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사이비예수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신천지 4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사목국장



요한 묵시록의 머리말은 앞날에 대한 계시인가?
요한 묵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요한 묵시록의 이 머리말을 “하느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셨다.”고 글자 그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시’(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그리스 문학에서 쓰이던 말이고, 구약성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날에 대한 엄청난 환시, 혹은 앞날에 일어나고야 말 엄청난고 무시무시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용어입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표현도 당시 묵시문학에 사용하던 독특한 표현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시록의 저자는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요? 묵시록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사건과 함께 구원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분명히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와 박해 하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투신을 촉구하고자 일부러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인을 찢찢매도록 한 어느 성경 전공 신부님 이야기

성경을 전공한 박사 신부님이 신천지의 지도자급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신부님은 요한 묵시록의 첫 대목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를 누구에게 알리셨다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즉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 알리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두 번 다 똑같이 ‘알리다’로 번역된 표현은, 성경원문(히랍어)을 보면 ‘데에익사이’(보여주다)와 ‘에세마넨’(기호화하다, 표시하다)으로 각각 다르게 쓰여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는 그냥 알려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는 의미를 담아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말에 신천지선생은 꼼짝을 못하고 “당신 누구요? 그만 가시오!” 했답니다.^^ 요한 묵시록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 요한에게 기호화해서, 즉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요한 묵시록의 저자가 왜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징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교회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이유에 대한 숙고 없이 요한 묵시록을 자신의 잣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장 5절의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은 바로 신천지교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에 관한 것인데, 신약의 모든 예언은 교주 이만희에 대한 것”,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영생을 누릴 것”, “14장 4절의 144,000명을 신천지교회 신자로 채우면 21장의 ‘새 하늘 새 땅’인 신천지(新天地)가 시작될 것”이라는 황당한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년왕국설과 신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문**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코린 2,15)

대구전례꽃꽂이연구회



자연은 우리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하며 많은 것을 선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를 지닌 꽃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 삶의 여정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냅니다. 특히 가톨릭교회 안에서 꽃꽂이는 전례력에 따라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며 전례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전례꽃꽂이는 개성 있고 자유롭게 표현되는 일반꽃꽂이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제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전례의 핵심을 표현해 내기에 깊은 묵상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9월 교구장 인준을 받아 창립하여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1시 미사를 봉헌하고 지정된 본당 순서대로 미리 전례에 따른 작품을 발표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제·부제서품식을 비롯해 주교님 착좌식, 보좌주교님 서품식, 도보 성지순례 제대꽃꽂이, 원로사제 금경축 축하 목걸이 등 각종 교구행사에 꽃이 필요한 곳이라면 14명의 임원들과 함께 어디든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에서 전례꽃꽂이연구회 부설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가 초·중급, 고급, 전문, 연구과정 4개 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4명)의 열성적인 지도로 4년간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대림시기 전 주부터 새로운 신입 개강 수업이 진행되며 해마다 11월 첫 주(수, 목, 금) 3일간은 수료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기간 중에는 임원들이 코사지를 만들어 그 판매 수익금을 연말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정성을 보태기도 합니다. 강습, 세미나, 전시회 등의 공동 연구 활동과 함께 피정, 야외 수업 등을 통해 신심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본 연구회는 출판, 도서간행까지 추진하며 ‘제대꽃꽂이 봉사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2코린 2,15)라는 성구처럼 주님의 말씀이 향기롭게 피어오르도록 묵묵히 주님의 제단을 가꾸어 온 시간들은 많은 신자들에게 전례의 거룩함을 전달해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중앙 제대를 향해 깊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름답게 정성껏 손질해둔 제대 꽃을 바라볼 때면 주님께서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위안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체험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 꽃으로 기도드리는 전례꽃꽂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본당에서 제대 꽃꽂이 봉사를 하고 있거나 봉사를 희망하는 신자와 수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꽃문**

회장: 류무연 안젤라, (010)2501-1543



④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수도자 修道者, 수녀 修女

〈라〉 monachus - monialis, religiosus - religiosa, frater - soror, regularis

〈영〉 monk - nun , religious, brother - sister, regular

교회법으로 설립된 특정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정결, 청빈,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공적으로 선사함으로써 그 수도회에 합체되고 수도회 소속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자(교회법 제607조 참조)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모두 “수도자”(수사 또는 수녀)라고 하고,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괄호 안에 라틴어를 적습니다. 또한 conversus는 “평수사”, cooperator는 “협력자”라고 합니다. 구별이 필요한 경우, monachus는 “관상 수사”, monialis는 “관상 수녀”라고 합니다.(교회법 제613조 참조)

수도회 修道會 〈라〉 institutum, ordo, congregatio, societas

〈영〉 institute, order, congregation, society

여러 종류의 수도회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의 용어들을 모두 “수도회”(수녀회)라 하고,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괄호 안에 라틴어를 적습니다.

수세 水洗 〈라〉 baptismus ex aqua 〈영〉 water baptism, baptism in water

혈세나 화세에 대비하여 물로 받는 세례를 “수세”라고 합니다.

수위권 首位權 〈라〉 primatus 〈영〉 primacy

교황의 사목적인 권한으로, 교황 고유의 최고 권한으로 신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고 교회의 규율을 정하며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순교 殉教, 순교자 殉教者 〈라〉 martyrium, martyr 〈영〉 martyrdom, martyr

그리스도교 이전 구약의 경우에도 martyrium은 “순교”, martyr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는 신앙을 증언하려고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순교자의 조건은 ① 실제로 죽임을 당해야 하고 ② 그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반대하는 자에게서 초래되어야 하며 ③ 죽음을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례 교회 巡禮教會 〈라〉 ecclesia peregrinans 〈영〉 the Church Pilgrim

지상의 교회를 “순례 교회” 또는 “투쟁 교회”(ecclesia militans)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사도 4,32-35 제2독서 1요한 5,1-6 복음 요한 20,19-31.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 대구대교구 성폭력 피해 상담

춘계 주교회의 정기 총회(2018.3.5~9)의 결정에 따라 교구 내 성폭력 피해 상담처를 마련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으시면 담당자(교구 사무처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접수: (053)250-3015, (010)6269-3014 • 전자우편 접수: kanzler@dgca.or.kr

2017 대구주보 표지 원화 작품 전시

푸른 성화의 노래 정미연展

기간: ~ 4.10(화) 10:00~18:00 ※월요일 쉽니다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갤러리 | 작가와의 만남: 4. 7(토) 15:00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

크리스
문화예술제

공모주제: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공모분야: 문학시, 시조, 신앙수기 등, 미술(회화, 서예, 캘리, 사진, 디자인, 공예 등)

참가자격: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지역 및 연령제한 없음

접수기간: 4.16(월)~30(월)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와 각 본당에 비치된 포스터를 참조해 주십시오.



함께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TV 시청을 줄이고 가족과 대화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요한 형제처럼

박성규 엘리지오



⑥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9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4월 9일(월) 19:00 포항성모병원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9일(월) 11:00 황성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4월 9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9일(월) 11:00 신평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10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11일(수) 10:00 평화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9일(월) 11:00 계산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4월 11일(수) 19:00 별관사회합실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9일(월) 11:00 월성성당	-	-

성소 | 피정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5:0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본원

문의: (010)8353-2323, 페이스북 '베벳방'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4.17(화) 10:30~18(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향심기도 소개 피정

기간: 4.14~15 / 4.28~29(1박 2일)

장소: 평화계곡피정집(소울스테이)

대상: 기도하고 싶은 분 누구나

문의: (010)5332-7587

교육 | 모집 | 기타

박소피아 수녀의 한국화전

기간: 4.9(월)~21(토)

장소: 남대영기념관 성심홀

주제: 꽃과 마음

문의: (010)8438-9114

행복한 책읽기

일시: 5.2 매주 수 10:00~12:00

장소: 동성로 바로로팔서원

주제: 자아성장 and 신앙성숙

대상: 40~60대 여성 / 회비: 12만원

문의: 이만춘차아따 수녀, (010)2976-0184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5.11(금) 17:30~13(일)

4박 5일: 5.14(월) 14:00~18(금)

8박 9일: 4.19(목) 14:00~27(금)

에니어그램: 4.13(금) 15:00~15(일)

문의: (031)946-2337~8

31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모집

출발: 6.23(토) / 7.21(토) 4주 이상

설명회: 4.28(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1년), 장기(1년 이상)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oakinternational.co.kr>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8_2차)

일시: 4.11(수)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관절염의 이해와 관리

강사: 류마티스내과 김성규 교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기간: 5.23(수)~24(목) 9: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병원 3층 데레사홀

마감: 5.16(수) / 2만원(중식, 교재)

대구은행, 508-12-426680-6 호스피스

문의: 650-2642 / 650-343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8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4년 경력
053)471-0707 | 010-9688-7953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유러피안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icomious 무무스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덕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호로 13(수성못)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테파니아)

SINCE 1985 안지랑 국민은행 3층
성가정결혼
권 종 문(파비올라)
053)474-0025
010-3818-0818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전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규 (아우구스티노)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사랑나무의원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하이마트 맞춘점 옆)
말기암 통증/증상 완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 돌봄
※재능 및 기타 자원봉사자 상시모집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 상담/입원 053)217-9500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피타미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상담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타미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53-751-5961
010-3530-7700
위령회 총무 양호진 요셉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전문의를 이수윤(소피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사거리

행사 | 모임

4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22(일) 10:00~15:00
올해 성소 주일 행사는 예비신학생과 예비 신학생 부모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제7회 교구장기 게이트볼대회

일자: 5.8(화) / 마감: 4.10(화) 17:00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제4회 젊은이의 날

일자: 5.12(토) / 장소: 성모당
문의: 교구 청년국, 422-6692
<http://dcy.co.kr>

제5회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대회

일시: 5.12(토) 10:00~16: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 마감: 4.15(일)
대상: 본당 65세 이상 신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가톨릭전례학회 후원회미사 및 전례특강

일시: 4.9(월) 19:30
장소: 대안성당(중앙로역 4번 출구)
주제: 부활시기의 전례 생활

2018년 무학연수원 가족캠프

기간: 5.5(토)~7(일) 1박 2일 가능
장소: 증산오토캠핑장(김천 증산 소재)
참조: <http://cafe.daum.net/jeonhwasoo>
'무학연수원' 다음카페 세부내용
문의: (054)932-0620

대구가톨릭미술가회_사랑의 미술전

기간: 4.21(토)~29(일)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층 로비
문의: 사무국장, (010)6772-1194

생활성가 재즈밴드 빌리브 정기연주회

일시: 4.13(금) 19:00, 덕호아트홀
문의: (010)5899-0888 / 1만원

교육 | 모집

4월 가나 강좌

일시: 4.15(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시편 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4.8(일) 15:00 / 회비: 1만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기초반 수화교실 개강

기간: 4.22~7.22 매주 일 14:00~16:00
장소: 계산성당 제2교리실
수강료: 3개월 8만원(교재비 별도)
신청: 농아선교회, (010)3809-0447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발성법: 테너 김남수
기타교실: 이장호(그레고리오)
성가반주법: 김현숙(레지나)
유화·수채화: 박명숙(안젤라)
문의: (070)4266-0047

4월 참 신앙을 위한 토요 특강

일시: 4.21(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사: 이동우(마르코) 방송인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채용 | 안내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직원 채용

인원: 0명(총무, 회계/기획, 홍보/시설관리)
자격: 전문대졸이상 / 마감: 4.11(수) 15:00
서류: 교구 홈페이지 교구 알림 참조
제출: 교구 관리과, 250-3031

군위군 청소년 직원 채용

업무: 청소년지도사, 회계행정, 시설관리, 숙소관리, 조리
문의: 대구가톨릭청소년회법인사무국, 250-3037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4.11(수)~13(금)
접수처: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문의: 660-5164 / kkoya97@cu.ac.kr
<http://www.dgsunmok.or.kr>

신나무골 성지 개발

성지 개발이 시작되었으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신동성당, (054)972-2014

박익현 구심내과 의원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33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달성 피부과
아토피 만성피부 특화병원
미용시술중은인상 만들기
DALSUNG
원장 손재경(다미아노)-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터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 모객중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충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1긴호 긴급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삼성화학건설
ISO 9001 인증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간판(지붕개량) / 시스템 방수방기
대표번호 1577-2279
김원(토마스) 010-5623-9001

SM 수맥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보조금 131만원, 즉석 A/S, 출장상담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초흔, 재흔)
가나혼인잔치
23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